

계간 자 201509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한희림 작, 생의 꽃, 100×66, oil on canvas, 2015

광주 출신 조선대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33회, 뉴욕 아트 엑스포, 이스탄불 이르크 미술관 기획전 파리 유네스코 세계본부 기획전 등 단채전 참여 대동 미술성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원전미술상 등 수상, 신경림 시인 "처음처럼, 광자구 시인 "낙타"의 사랑, 임의진 목사 "참꽃피는마음, 등에 그림자화 및 영화 (친정원마) 테마그림 현재 광주시 남구 굿모닝 앙림죽제 조직위원장.

	여는 시 9월, 섬진강에서	김정희
2	'창'을 열며 窓! 뇌를 깨우는 문화활동	강동완
3	특집기획 - 진정한 청년문화기획자의 길을 묻다 관행의 사다리를 오르는 청년기획자의 오늘 2015년의 광주청년, 사다리를 건너자다 문화도시 미래, 문화기획자 키워야 문화도시 광주에서 청년문화기획자로 살아가기 강고한 현실의 벽, 언대로 뚫고 새로운 출구 마련해야	전고필 곽상희 곽규호 강수훈 김도일
16	문화진단 스토리텔링은 현대 도시의 강력한 경쟁상품 - 가칭 '광주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에 부처 지역이 세계의 중심, 희망의 뿌리가 될 수 있는가? - 지역 시민사회 싱크탱크 설립을 주창하며	조덕진 윤영덕
20	문화현장 광주청년들의 비빌 언덕, 광주청년센터 <the 숲> '대학을 넘어 대학으로' 시민자유대학 - '지식=대학'에서 '지식=자유'의 패러다임으로 지역학으로서 '광주학' 정초(定礎)를 위한 콜로키움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晨明) -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용아 생가에서 용아 무덤까지 - 광주문화로드 4번길	서일권 장복동 김지원 윤은희 김을현
30	문화포커스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서 꿈을 펼칩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4일부터 프로그램 단계적 공개	편집부
32	문화청년그룹 섬을 걷자! 섬에서 배우자! 섬에서 나누자! - 섬여행학교	강동준
34	문화톡톡 메가이벤트의 허와 실	안태기
36	이생각 저생각 영문 월간지 광주뉴스, 지역의 역량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산	김태형
38	재단·회원 소식·임원현황	편집부
48	강좌안내·편집후기	

'창'을 열며

窓! 뇌를 깨우는 문화활동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재단 지역문화진흥회장

지난해 12월 미얀마를 가는 대한항공기 안에서 역린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역린이라는 영화속에서 나온 문장 하나인 중용 23장의 글이 끊임없이 의식과 언어 그리고 행동을 깨우고 있다.

“기차(其次)는 치곡(致曲)이니, 곡능유성(曲能有誠)하면 성즉형(誠則形)하고, 형즉저(形則著)하면 저즉명(著則明)하고, 명즉동(明則動)하고, 동즉변(動則變)하고, 변즉화(變則化)하니, 유천하(唯天下)에 지성(至誠)이라야 위능화(爲能化)이니라.”

이에 대한 번역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영화의 대사는 다음과 같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베어나오고 곁에 베어나오면 곁으로 드러나고 곁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혀지고 밝혀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뇌에는 오감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이 학습되어 기억된다. 우리가 소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통찰하는 뇌이다. 통찰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닌 뇌가 주인이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탐구하듯이 뇌를 탐구하고 있다. 뇌는 생물

학적인 조직이지만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놀라운 의식과 언어, 행동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의식과 언어 그리고 행동을 일관성 있게 일치시키게 될 때 창 의적이라 한다.

우리에게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등과 같은 오묘한 맛과 그리고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 물질과 세상을 이해한다. 사실 이해라는 것은 학습이지만 학습은 뇌를 감각적으로 깨우는 생명력이다.

우리는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감각이 없이 일상을 살아가기도 한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감각이다. 우리는 흔히 크고 중요한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일은 무시하고 작은 일은 귀찮해 하고 중요한 일만 쫓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처음부터 중요하고 큰일이라는 것은 없다. 작은 일이 모여서 큰일이 된다는 것은 일관된 세상의 이치다.

영화 역린은 하나의 문화다. 역린에 나오는 대사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상성을 깨우고 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뇌를 깨우치고, 뇌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고,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일어나게 한다. 변화되어 생육되는 것은 문화다.

문화담론지 『창』 33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 지는 문화 활동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시민들의 뇌를 깨우는 문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간을 축하한다.



특집기획

진정한 청년문화기획자의 길을 묻다

- 광주 청년문화기획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관행의 사다리를 오르는 청년기획자의 오늘 전교필_광주드림 여행전문기자

2015년의 광주청년, 사다리를 건너차다 광상희_광주광역시 청소년인재육성과 주무관

문화도시 미래, 문화기획자 키워야 광규호_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문화도시 광주에서 청년문화기획자로 살아가기 강수훈_스토리박스 대표, 전 2015세계청년축제 준비단장

강고한 현실의 벽, 연대로 뚫고 새로운 출구 마련해야 김도일_조선대 초빙교수, 재단 운영위원



특집기획

관행의 사다리를 오르는 청년기획자의 오늘

전고필 광주드림 여행전문기자



그냥 살아지는 광주

오늘의 청년현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486으로서 염치없는 것이다. 사실 몰랐다. 서울의 청년허브에서 1년간을 보내면서야 알았다.

광주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할 일이었다. 광주는 그냥 사는 곳이다. 살아지는 곳이다. 왜냐고 묻는 것도 사치다. 광주에는 여느 도시와는 좀 더 큰 보이지 않는 줄이 있다. 줄은 피불이의 줄, 지연의 줄, 학연의 줄, 언론의 줄, 행정의 줄, 자본의 줄, NGO의 줄, 권력의 줄 이런 줄의 뒤엉킴에서 사람들은 살아진다. 이 줄이 광주를 살려냈고, 위대한 민주화의 도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와서는 문화전당까지 건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뒤엉킴의 혼란에서도 주장자를 내리치며 일갈을 하던 어른다운 어른이 사라져 버린 후,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진투구의 장으로 내몰린 것 같았다. 저마다의 자기 자장을 형성하며, 말만 무성한 도시, 입심의 무성함으로 인해 후진이 영입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불임의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없다. 광주만 그러지 않으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도 불안하다. 영원한 청춘의 도시가 이제 노화된 도시, 과거의 추억만 먹고사는 도시, 큰소리만 치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경향각지에서 모인 서울에서 청년과 1년을 겪어 보니 광주의 미래가 참혹했다. 이렇듯 청년의 존재감을 투명하게 무시하는 도시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 거기 나도 모른 사이에 합류해있는 권력이었다. 서울의 청년들은 내게 그랬다. “배부르고 게으르고 낭만적이고, 자기 세대만 아는 4~586이 우리 세대를 망쳤어요”라고.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이해가 되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었다. 선배들 쳐다보면서 우리끼리 수군덕 수군덕거리며, 후배들이 돕겨 위해 찾아오면 삼겹살에 술 몇 순배 돌리고 “우리 때도 다 그랬어야.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따위로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광주는 그냥 사는 곳이다. 살아지는 곳이다. 저마다의 자기 자장을 형성하며, 말만 무성한 도시, 입심의 무성함으로 인해 후진이 영입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불임의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없다. 광주만 그러지 않으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도 불안하다. 영원한 청춘의 도시가 이제 노화된 도시, 과거의 추억만 먹고사는 도시, 큰소리만 치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광주의 청년

대인예술시장에서 보낸 2014년, 매달 이뤄지는 야시장에 직접 제작한 공예품이거나 예술품이거나 먹을거리를 들고 오는 이들이 셀러가 되어 장사를 한다. 가장 많이 신청할 때 이 팀은 253팀이었다.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팀은 120여팀이다. 절반이 야시장 진입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이를 동안 판매한 평균금액은 43만원이다. 한팀 당 평균 두세명이 불고, 장사 시간은 하루 5시간씩 이를 총 10시간, 판매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한달 동안 품을 판 친구도 단 며칠새 돈이 되는 음료나 음식을 만드는 친구도 혼재해 있는 야시장 셀러의 평균 연령은 31세였다. 한달에 한번 있는 행사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물었다. 왜 하느냐고, 답은 간결했다. “좋아하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물건을 누군가 사주고 공감해 주니까요, 눈치 안보고 내 장사 하니까요, 잘 벌면 알바보다 훨 좋아요” 그런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 광주의 청년실업의 단면이 대인시장에 보여지는 모습이다. 작년 윤장현 시장이 취임한 후 일성은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의 안정적인 진로모색을 역점 시책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금년에는 금남지하상가 40여 평의 공간에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청년의 삶과 일과 자립과 자활의 플랫폼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청년은 궁핍하다. 3포를 넘어 5포에서 가늠할 수 없는 모든 미래를 포기한 N포 세대가 되어버린 오늘날 청년의 자화상이 광주라고 해서 다를리 없다.

문화판에 데뷔하는 청년

금년 7월 광주는 떠들썩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동안 광주는 온통 젊음의 열기로 들끓었다. 그때 난데없이 등장한 축제가 2015세계청년축제였다. 그간 광주의 청년들이 대외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던 경험이 그다지 없

는 것으로 기억한다. 있다면 그것은 YMCA나 홍사단이나 광주국제교류센터나 5·18기념재단 쪽에서 관련 분야쪽의 교류거나 원조였을 터이다. 즉, 일상적으로 오거니 가거니 하는 교류가 전무한 가운데 대회에 오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놀거리, 즐길거리, 교류거리, 우리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마당으로서 세계 청년축전을 급조하게 된 것이다. 그 일은 다행스럽게 청년주체들이 맡아서 일을 했다. 그들이 프로건아 마추어진 이 일을 도맡아 청년이 진행하게 했다는 점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드디어 광주에서도 청년이 당당하게 한 꼭지의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그 과정과 절차상의 얘기는 기실 이 마당에서 중요치 않다. 동원된 인력이 아닌 스스로 구성하고 실행하는 자발적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 감격스러운 것이다. 그간 어떤 판이건 청년은 노가다의 대상으로 열정페이로 감내해야 하는 건 존재감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이 끝난 후 몇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청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예산에 관한 문제, 폐이에 관한 문제 등이 불거진 것이다. 청년에 대한 발상은 전환했는데, 방식은 예전대로 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일로 송고한 청년의 광주사회 입봉은 호사가들의 입방아 감으로 전락했다. 한편 청년의 이름으로 광주문화관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외부적으로 스크린 되는 이들이 많다.

현재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교육문화공동체 결”은 대인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도 겸하고 있다. 타 지역 출신이면서 광주에서 문화관련 컨설팅과 연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쥬스컴퍼니”가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컬처네트워크”, “스토리박스”, 사단법인 “청년 무한 상상 허브”와 같은 청년 문화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이 주로 접근하는 일은 광주문화재단이나 광주시, 문화전당의 지원사업에 공모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다. 비교적 공공부문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일의 방식 말고 사적 영역에서의 일들은 광주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시장을 놓고 서로간의 경쟁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적은 없다. 오히려 상호 보완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생의 관계가 더 잦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제 시장을 찾아야 할 때

기초문화재단인 춘천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한 춘천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3년 전부터 “1당 100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100인과 1회가 되었던

100회가 되었던 공유하는 이들에게 경험과 실행과 좌절과 성공의 도전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몇 년간 진행되는 사이 청년들은 이 사업을 기다리고, 기존에 지원을 받던 예술인들은 청년기획자에게 특권을 준다고 불멘 소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런 지역문화기획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존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각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결국 문화부도 각 지역 문화재단에 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청년만을 주체로 하지는 않는다. 사실 인력양성의 기회는 대학이나 대학원, 각종 지원사업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빈도가 늘어났다. 하지만 정작 양성된 인력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적 부분에서 문화기획분야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두터운 장벽은 이미 대규모 기업 자본의 영토에 복속되었다는 점이다. 연간 매출액을 따지고, 경험치를 따지고, 조직 규모를 따지고, 자본의 규모를 묻는 것에 답할 청년기획자는 없다. 때문에 이런 규모의 시장에서 청년은 사업의 한쪽지를 하청 받아 발바닥 닳도록 뛰는 방식 말고는 참여기회조차 오지 않는다.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관련 시 산하 기관에서는 양성의 과정에 충실하고 그들의 경과관리나 후속조치에는 아직 손이 닿지 않는다. 결국 정례적인 사업에 대한 청년기획자의 참여는 관행의 문턱을 넘는게 쉽지 않고, 부정기적이거나 급박하게 발생하는 사업분야에 참여 기회가 경쟁을 통해 주어질 뿐인 것이다. 결국 여러 분야에서 양성은 있지만 이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현장을 찾아가는 경로에 마중물이 되어주는 경우가 거의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현재 지역의 현장은 크게 여섯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문화관의 기획,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획, 셋째, 도시 재생과 관련한 기획, 넷째,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기획, 다섯째 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한 기획, 여섯째 아직 광주는 미흡하지만 사회혁신과 관련한 기획 등으로 볼 수 있다. 분명 여기에 청년이 치고 나갈 구석이 있다.

다만 전술했듯이 여전히 밥순가락에 목매어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필자와 같은 486이나 올드 보이 선배들이 없다면. 그냥 살아지는 광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년 기획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들을 위해 사다리 하나 놓아줄 건강한 선배가 있다면, 행정이나 산하기관에서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응원해 준다면,^^

특집기획

2015년의 광주청년, 사다리를 건너차다

광상희_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 주무관



문화도시 10년, 성 밖이 열렸다

2015년 가을, 드디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관성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다. 청년 문화인들의 생각도 궁금했다. 시민들께서는 문화전당의 성공을 염원하실 것이라 짐작한다. 청년 문화인들은 어떨까? 요새 같은 성을 보면서 성 안으로의 진입을 기대할까? 또는 좌절할까?

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에서는 관점과 시선을 뒤집어 성 밖을 주목한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보완하는 전당 주변의 문화활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광장이 열렸다. 전당을 둘러싼 거리가 생성되었다. 일종의 도시공원이 만들어졌다.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탄생할 준비는 모두 끝났다.

‘청년문화’의 색깔이 필요해!

청년문화가 필요하다. 문화도시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문화’와 ‘문화도시’에 대해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술적 담론은 무성하다. 현장에 착근하지 못한채 관행화 된 ‘사업’과 ‘행사’는 반복된다. 그 사이 청년 문화인력(여기에는 문화기획자가 대표적이다)은 술하게 양산되었다. 이름조차 헤아리기 어렵도록 많은 수의 기관별 교육과정을 수강했고,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이름을 건 대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양산의 숫자만큼 실망의 깊이도 깊어졌다. 청년 문화인력의 역량과 저력은 진지하게 평가되지 못해왔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청년 전담부서로서의 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는 청년들의 역량을 주목한다. 경험과 노련함이 아닌 잠재성과 신선함에 집중한다. 발제자가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불임의 지역사회’를 전환시킬 힘은 청년들에게 있고, 새로운 문화도시 창조의 가능성은 청년 문화인들에게 있다. 다만 그들이 펼쳐보일 무대, 마당, 판이 없을 뿐이다.

사다리를 없애주세요

지난 여름 하계 U대회 기간 중에 문화행사 ‘2015 세계청년축제’가 개최되었다. 청년의 활력이 도시를 어떻게

청년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도시 광주를 꿈꾸는 우리는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특정화하자, 둘째 주도성을 부여하자, 셋째 성과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청년 문화인력을 세 부적으로 특화시키고, 그들 안에서 협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첫째 과제이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가며 청년끼리의 연대가 형성되는 것이 둘째 과제이다.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가 가지는 공급자 위주의 문화를 벗어나 시장력을 키워가는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셋째 과제이다.

바꿀 수 있는지, 청년의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광장을 채워낼 수 있는지, 청년의 열정이 어떤 에너지를 가진 것인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제자의 평가대로라면 ‘동원된 인력이 아닌 스스로 구성하고 실행하는 자발적 주체’로 광주사회에 청년이 등장했다. 단 발제자의 우려와 같이 송고한 데뷔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한명의 이의도 없이 박수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데뷔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인가 묻는다.

또한 선생의 이름으로, 선배의 이름으로 사다리를 놓아주지 마시라 당부하고 싶다. 사다리는 누구의 제자, 누구의 후배, 누구의 무엇무엇이라는 것이지 않은가. 그 누구의 사다리가 족쇄가 되어오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색깔이 입혀지는 순간 청년문화는 ‘송고한’ 제 색깔을 잃어버린다. 평가를 배제한 채 응원하고, 규정짓지 말고 도와주시라 부탁드리고 싶다.

3가지를 고민한다

프로 투자자가 청년 벤처인에게 투자를 할 때 판단의 요소는 3가지라고 한다. 시장이 열리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함께 이뤄갈 좋은 팀이 있는가. 청년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도시 광주를 꿈꾸는 우리는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특정화하자, 둘째 주도성을 부여하자, 셋째 성과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전 영역을 도맡았던 기획자의 시대는 저물었다. 청년 문화인력을 세부적으로 특화시키고, 그들 안에서 협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첫째 과제이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가며 청년끼리의 연대가 형성되는 것이 둘째 과제이다.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가 가지는 공급자 위주의 문화를 벗어나 시장력을 키워가는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셋째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던지면서 토론문을 접는다. 문화자본 CJ의 광고 카피 “문화를 만드는 일, CJ가 가장 잘하는 일”에서 보듯이, 열풍처럼 휩쓰는 아웃도어 문화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예처럼, 셰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식문화를 바꾸는 사례와 같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문화는 시장과 공공의 경계 없이 넘나든다. 2015년 지금 광주에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문화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을까. 청년 문화인력에 대한 행정의 투자가 궁극적으로 닿아있는 방향일 것이다.

특집기획

문화도시 미래, 문화기획자 키워야

곽규호_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200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째,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렸다. 기실 그 성격이나 규모에 비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 개관이지만 지역의 예술인들과 문화기획자, 그 길을 꿈꾸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어찌됐든 콘텐츠를 보여주기 시작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아쉬움은 조직, 인력, 정부정책 등 여러 원인이 있을 터, 오늘 토론의 주제인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되새겨보게 한다.

많이 듣는다. 광주에 문화기획자가 없다는 것이다. 기획자가 없다? 그럼 그동안 광주의 문화관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던 것일까? 실상을 알고 보면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간단하지가 않았다. 문화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원하는 주제마다 제각각인데다, 실제 현장에서 원하는 문화기획자의 모양 또한 수요자의 숫자만큼 달랐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거기에 더 나아가 광주 지역 대학들이 앞 다퉈 문화예술 관련 전문학과를 개설하고 대학원을 개설해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 왜 기획자가 없다고들 하는 것인가.

광주문화재단이 2014년 문화인력 수요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현장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며 동시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융합형 전문가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필요역량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의성, 예술성, 협업, 의사소통, 사업성, 효율성, 기술성, 전문성, 리더십, 마케팅과 PR, 공연장 특성개발, 비즈니스 마인드, 외국어, 기술적 전문성, 콘텐츠 관리능력, 전략적 사고, 마케팅 기술, 네트워크, 디자인적 감각, 다양한 장르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적용 등이다. 그야말로 기획이란 말 속에 전지전능적 슈퍼맨의 능력이 요구되는 듯하다.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가진 인력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있다 한들 광주에 남아있기도 쉽지 않다.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보다 현실적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문화전당의 5개원은 물론이고 광주문화재단이나 나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원하는 인력은 현장 업무 수행 능력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의자를 옮기고, 작품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 즉, 몸을 쓰는 일에서부터, 서류를 기안하고 결재하고 회계 처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소중하게 쓰인다.

광주문화재단은 이 같은 관점에서 2014년 두 건의 문화기획자 양성교육을 시행했다. 『문화예술거점기획 및 운영전문가양성과정』과 『문화동네 기획인력양성과정』.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이두 교육프로젝트의 목적은 현장에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교육시켜 수료 후 투입시키자는 데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교육생들의 취업은 절체절명의 목표였다.

취업 목표는 이루지 못한 탓에 고용부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문화동네 기획인력양성사업의 수료생들이 일할 현장은 마을이어야 했지만, 마을들은 아직 젊은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반면 청년 기획자들이 목 빠지게 기다려온 아시아문화원(전 아시아문화개발원)은 1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도 겨우 50여 명 뽑는데 그쳤다. 앞으로 더 뽑을 인력도 전당을 포함해 40명 내외에 불과하다. 청년문화기획자들에게 취업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다.

재단의 인력양성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문화동네 기획인력양성교육과정에서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장실습을 넣었던 게 큰 효과를 나타냈다. 기획에서부터 공연출연진 섭외, 무대 기획,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까지가 모두 교육생들의 손에 의해 진행됐고, 교육생은 물론 대상 마을이었던 백운동 난지실 어르신들이 행복해했다.

문화예술거점 기획 및 운영전문가 양성 교육은 광주시 광산구 소촌산단을 문화거점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었다. 이 쪽에서는 실습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 기획자들이 강사로 초빙돼 수준 높은 이론 교육과 현장 이야기, 꼼꼼한 질문으로 강의실은 숨막힐 듯한 열기와 밀도로 가득 찼다.

교육을 마치고 2014년 12월, 교육생들에게는 갈 곳이 없다. 광주문화재단에서 6명 가량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 다행인 것은 교육이 진행되고, 마을 축제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문화전당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현장 일꾼을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늘었다는 점, 또 2015년 9월 현재 수강생 가운데 10여 명이 이들 문화기관의 부름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뽑혀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30여명을 뽑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 가운데는 이미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활동해온 예술인, 기획자까지 포함됐다. 지침 상 어쩔 수 없는 결과이면서도 역시나 문화예술일 자리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다.

청년기획자 양성,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첫째가 교육이나 양성에 그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갈 곳이 없는 기획자들, 빼어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놓치는 일은 낭비하면서 손해다. 둘째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문화기획자라는 직업명이 보여주는 그 성격이 정규직과 다소 거리 있어 보이지만 놓칠 수 없다. 셋째는 여러 군데서 제기돼 온 미스매치 해소대책으로서의 '문화기획자 일자리플랫폼'이다. 청년이 정보를 모르고 기관·단체가 사람을 모르는 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이를 위해 '기획자의 집' 형태로 청년문화기획자센터 같은 공간을 조성하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 추진해야할 일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시민 소외를 줄이는 일이다. 청년기획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매력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문화예술계, 교육계만의 문제로 놔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빠트리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 있다. 

특집기획

문화도시 광주에서 청년문화기획자로 살아가기

장수훈_ 스토리박스 대표, 전 2015세계청년축제 준비단장



언제부터가 나는 청년문화기획자로 불리우며, 그렇게 청년문화기획자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청년문화기획자를 꿈꾸지도 않았고, 청년문화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청년문화기획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매우 어려웠다. 다만 세상에는 청년문화기획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꽤 있고, 스스로를 청년기획자라고 소개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본 것은 사실이다. 세상에 묻고 싶다. “과연 청년문화기획자는 무엇인가요?”

왜 ‘청년’ 문화기획자인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청년’ 열풍이다. 우리의 미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특정 역할 앞에 ‘청년’을 붙인 키워드가 부쩍 많이 등장하는 요즘이다. ‘청년’ 상인, ‘청년’ 장사꾼, ‘청년’ CEO, ‘청년’ 창업자, ‘청년’ 정치인, ‘청년’ 문화기획자 등. 이 때 20~30대의 같은 또래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에겐 ‘청년’을 붙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청년’을 붙이지 않는데, 그에 대한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다. 청년에 대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청년의 범주가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청년문화기획자의 ‘문화기획’ 또한 상대적인 정의일 수 밖에 없어 결국 청년 문화기획자는 스스로 원치 않더라도 주변에 의해서, 때로는 주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규정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청년문화기획자는 대부분 이랬다.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고, 자기 주변에서부터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활동하고,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팔꿈치로 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박수받는 무한 경쟁의 팔꿈치 사회(Ellenbogengesellschaft)를 살면서도, 혼자서만 잘 되려는 마음으로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자신의 필요만큼이나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했다. 어

찌면 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은 선배 세대들이 보여줬던 사회활동가의 모습,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은 분명하게 전과 달랐다. 과격하지 않고, 변화의 속도에도 민감하지 않았다. 일하는 모습은 세련되고 발랄했다. 어찌면 사회활동가의 속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요즘 세대에 걸맞는 문화기획자로 표현되거나 불리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광주 청년문화계의 판
광주에 문화전문대학원이나 문화학과가 있어서인지, 문화말고 창업 및 창직 등 먹고 살거리가 쉽지 않아서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문화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또 그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 곳곳에서 플리마켓을 열기도 하고, 문화 관련 강연회나 네트워킹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2015년 광주의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 제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함께한 ‘세계청년축제’ 역시 그랬다. 청년 스스로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추진 방향을 정하고, 힘차게 전진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걸쳐버시아드로 실현되는데 한 몫했고, 광주를 방문한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신나고 열정적으로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SNS에 익숙한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접하는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는 2,000여건 이상의 청년 축제 관련 게시물이 업데이트되었고, 그 이미지는 한결같이 즐겁고 유쾌했다. ‘청년’을 테마로 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했다. 세계청년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 기획자를 한데 모아 그 역량의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했으나, 충분치 못했다. 이번 축제 참여가 청년 각자에게 경험이나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목이 되어 참여한 청년들의 저임금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꿈 많고 적극적인 청년들의 노동력과 아이디어를 착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문화관의 고용 환경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다.

청년문화기획자의 꿈, 상상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청년문화기획자들 스스로 ‘따로 또 같이’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같이 하는 것’ 없는 ‘따로’는 외로운 자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문화는 다양성이 곧 생명이기에 청년 각자 다른 색깔을 만들어가되, 따로 있으면서도 늘 같이 행동해야 한다. 일례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연대해서 문화계의 청년 착취를 없앤다면, 전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광주의 문을 두드리며 각자의 꿈을 광주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주가 청년문화기획자들이 품고 있는 꿈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청년의 도시 광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

특집기획

강고한 현실의 벽, 연대로 뚫고 새로운 출구 마련해야

김도일_조선대 초빙교수, 재단 운영위원



현재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진행과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변동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문화변동이란 한 사회의 문화가 내적으로 변동하거나,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요소를 수용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광주사회가 사회제도나 의식구조가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가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현재 지역 구성원 모두의 과제이자 광주의 미래 지평을 넓히는 첩경이기도 하다.

전고필 선생의 논고 “관행의 사다리를 오르는 청년기획자의 오늘”은 청년문화기획자의 중요성과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그들 사회의 경쟁적 관계, 그리고 문화시장에서 공공부분 영역에만 머물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사적영역에까지 시장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전형화 되어버린 지역선배들의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람 키우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전고필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곁을 떠나지 않는 생각은 청년연대의 필요성이다.

세대 간 불균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환기시킨 『88만원세대』라는 책의 표지에는 “20대여,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쟁돌을 들어라”는 문구가 있다. ‘쟁돌’의 실체는 20대끼리의 연대를 은유하며, “만약 20대 1만 명 정도가 스타벅스에 가기를 거부하고, 20대 사장이 직접 내려주는 커피와 차를 마시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쟁돌’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말은, 광주의 문화기획 현실에 비추어 ‘광주 청년문화기획자여 연대하라!’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연대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지역 젊은이들이 꿈꿨던 아시아문화전당의 취업은 고용인력 축소와 함께 멀어져만 가고,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지역 문화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이기 보다는 보조 역할에 머물고, 하도급 형태의 저렴한 가격의 문화노동인력으로 전락되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다보니 광주의 퍼스널리티(personality)라고 주장하는 민주·평화·인권의 이면에, 혹시 항상 불안과 초조감에 쌓여있으며 의심이 많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 혁신에 대한 구체성은 88만원 세대를 이야기 하였듯이 젊은 청년기획자들의 연대와 소통이다. 사람들은 관습적인 행동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의 사회적인 균형 상태(social equilibrium)를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사회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문화의 연속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상태가 상호 보완적이지 않을 때는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 이 출구는 바로 젊은 문화기획자들의 연대이다. 이젠 청년문화기획자들의 주체적 역량의 결집과 미래지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가 아닌지, 목적은 같으나 생각의 차이만 존재해도 이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지나 않는지, 일단은 내가 든든해야 옆을 둘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기주의적이거나 없는지, 또한 이러한 점들이 지역사회나 세대 간 또는 선후배사이의 양분화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거나 없는지, 또한 이러한 문화가 공유되고 학습되거나 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거나 없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지역사회의 청년문화기획자 또는 문화인력들에 관한 관심과 양식들은 그들 선배(사회적 관행 포함)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들을 형성시켜준다. 한번 기본적으로 형성된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과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끝없는 연속선상에서 선배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을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후배들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역 후배들에게 높은 성취욕구의 결여가 오거나 무기력증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 혁신에 대한 구체성은 88만원 세대를 이야기 하였듯이 젊은 청년기획자들의 연대와 소통이다. 사람들은 관습적인 행동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의 사회적인 균형 상태(social equilibrium)를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사회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문화의 연속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상태가 상호 보완적이지 않을 때는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 이 출구는 바로 젊은 문화기획자들의 연대이다. 이젠 청년문화기획자들의 주체적 역량의 결집과 미래지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젊은 문화기획자들의 진솔한 활동 사례들 속에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느끼는 민감성과 불안한 사회와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기획이란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들은 지역과 주변의 문화적 소통을 위한 문화매개자 역할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자존의 의미를 재발견한다. 특히 열악한 현실과 현장의 많은 갈등, 생계의 곤란 속에서도 문화예술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문화진단

스토리텔링은 현대 도시의 강력한 경쟁상품

- 가칭 '광주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에 부쳐

조덕진_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재단 운영위원



명예의 전당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추진과정에서 살펴야 할 점도 산적해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적 인문학의 한 축인 문화예술과 이를 담당해 온 이들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명예의 전당이 지역 문화상품으로 관광자원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명예의 전당'이란 명칭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

광주 문화재단이 '광주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가칭이하 명예의 전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국 정신사의, 인문의 보고요 발원지라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반가운 일이다. 면면한 역사문화유산을 비롯해 음악(판소리), 미술(남종화) 문학 전반에 걸쳐 풍부한 인물과 자원을 보유한 이 지역은 한국 정신사의 원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편제와 서편제의 발원지가 남도이거니와 의재 허백련을 비롯해 천경자, 김환기 등 근대의 내로라하는 화가들로 이어지는 미술의 원류는 남도를 예술의 본향이라고 부르기엔 충분하다. 어디 음악과 미술뿐인가. 이청준과 조정래, 김현승, 박용하, 한승원 등 한국 문화사에 걸출한 인물들을 품어낸 문학의 영역은 굳이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장기적 전략과 종합적 접근은 생명

이처럼 면면히 흐르는 남도의 인문의 DNA는 현대에 이르러 대중문화에 뿌리 깊은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독립영화의 신기원을 이룬 <위낭소리>의 이충렬 감독,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 <명량>의 김한민 감독 모두 전남 생이다. 케이블 드라마로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장안의 화제를 불러 모은 <미생>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도 광주태생이다. 대중을 울리고 웃기며 일상의 슬픈 그림자에 힐링을 더해준 이들이 모두 이곳 남도의 바람과 하늘이 길러낸 인물들이다.

이처럼 넘쳐나는 역사문화유적과 인문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평가나 활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이를 지역경쟁력의 자산으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문화상품화는 더욱 먼 이야기였다.

국내·외의 많은 도시들이 해당 지역의 예술인이나 예술작

품의 그림자를 지역 문화상품으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안을 찾고 방향성을 찾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역할과 의무이기도 하다. 이들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전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명예의 전당은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시대적 과제로 평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부분적이지만 문을 열었다. 기존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에 전당이 지닌 다양한 콘텐츠와 건축학적, 미학적 요소는 또 다른 문화관광 흡입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이 지닌 문화예술적 자산의 의미와 가치, 한국 정신사에 차지하는 위치 등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작용해 지역사회 정신적 자산에 보다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문화예술관'과 '체험관' 등 두 개의 큰 축으로 운영될 예정 명예의 전당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추진과정에서 살펴야 할 점도 산적해 있다. 각각의 항목이 지닌 내재적 규모와 의미, 가능성,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단기간에 혹은 한계만에 완성되기는 어렵고 그래서도 안된다. 준비단계, 추진단계, 실행단계 등 장기전략으로 추진해야 생명력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이들 각 부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는 지금까지 이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적 인문학의 한 축인 문화예술과 이를 담당해온 이들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접근에 바탕해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 명예의 전당이 지역의 문화예술이 지닌 한국 정신사에서의 위치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뒤따라야하고 이를 연계하고 집대성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장기 전략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인관의 경우 선정 대상의 범위, 분야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동의 가능한 기준이 생명이다. 이 부분 역시 학계의 충분한 검증과 고민, 전문가 집단의 전략적 고민이 결합돼야 한다. 교육·체험관은 기존 문화전당이나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련 기관들과의 차별성, 독창성이 선결돼야 한다. 구색 맞추기로 혹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피할 수도 없

고 지역 경쟁력 강화, 관광전략 등 명예의 전당이 의도하거나 꿈꾸는 소기의 성과들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과 연계한 문화상품화 프로그램과 연계돼야 한다.

두 번째는 명예의 전당이 지역 문화상품으로 관광자원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시를 방문할 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파편적으로 한 면만 보고 떠날 수 밖에 없다. 지금 추진되는 명예의 전당이 그에 걸 맞는 콘텐츠와 전략을 확보할 경우 자연스럽게 지역 문화예술이 한국 정신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고 나아가 광주의 중요한 관광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역사문화유산자원의 보존과 성공적인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이나 디지털 관광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전략 등은 시기적으로 지역이 반드시 고민하고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나 상징적인 면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특징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를 가미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은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의 향기를 스토리로 발굴하고 특화시켜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민들에게도 정신적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내발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문화상품들은 해당 지역민들의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란다. 전시용으로 혹은 대외 상품용으로 전개되서는 결코 안 된다. 또 '명예의 전당'이란 명칭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명칭은 다분히 문화적이지도 예술적이지도 못하다.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명칭을 고민해야 한다. ㄸ

문화진단

지역이 세계의 중심, 희망의 뿌리가 될 수 있는가?

– 지역 시민사회 싱크탱크 설립을 주창하며



윤영덕_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지역담론의 생산과 확산,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 개발, 정책정보와 정책대안의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 지역정책전문가의 양성과 지역사회 정책역량 네트워크로 지역정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시민사회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이 두어깨와 가슴을 짓누를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 하나의 삶도 제대로 가꾸고 있지 못하면서 세상일에 눈 돌리는 것이 허세나 사치는 아닌지?’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면서도 남부끄러운 광주의 모습을 마주할 때, 나는 또 묻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 민주주의는 내재화되어 있는지? 나는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으로서의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갈 때 ‘광주의 역할’을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또 광주여야 하는지? 광주도 이제 좀 실속을 차리면 안 되는지?’

어김없이 반복되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또 시간은

흐렀고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

그러나 내 마음 속 질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나도 변했지만 내 삶의 질은, 내가 터 잡고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실질적인 변화는 너무도 더디기만 하다. 그렇다고 절망이라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 여전히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어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극심한 중앙집중체제가 여전히 강고한 상황에서 소위 ‘중앙’에 종속된 ‘지역’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지방은 식민지다’는 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겠는가? 이러한 우려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이 한결같이 직면하

고 있는 문제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의 종합적인 결과겠지만, 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역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요인이 크다고 판단된다. 중앙에 대한 종속,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의존,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안감 등등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혁신역량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역 스스로가 대안을 찾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총론’이 아닌 ‘각론’의 차원에서 지역사회 변화의 실현 가능한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 발전 전략과 정책을 생산해 이를 지역공동체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긴요해졌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진전과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확대,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증대로 지역의 정책생산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의 정책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지역관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를 ‘관료에 포획된 민주정부’라고 평가했던 최장집 교수의 주장이 크게 다가온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를 ‘관료에 포획된 지방정부’라고 평가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풀뿌리 단위에 서부터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삶의 현장에 토대한 우리 사회의 ‘대안 민주주의 모델’을 탐색해야 하는 과제가 절박하다. 시민사회운동에서도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

제의 부활 이후 정책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면서 시민운동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시민중심의 의제 선정과 공공정책연구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과제다.

지역중심의 담론을 생산하고, 이론과 현장을 결합해 시민중심의 생활 밀착형 의제를 발굴해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역량,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다시 말해, 지역담론의 생산과 확산,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 개발, 정책정보와 정책대안의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 지역정책전문가의 양성과 지역사회 정책역량 네트워크로 지역정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시민사회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지역을 세계의 중심으로, 지역을 희망의 뿌리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 지역을 화두로 지역의 희망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를 디자인하는 ‘지역중심형 연구소’,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에 토대를 두는 ‘현장중심형 연구소’, 실행 가능한 정책을 생산하는 ‘실사구시형 연구소’의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 역량으로 이런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까? 연을 날리고 싶으면, 바람이 부는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을 들고 뛰어야 한다. ㄸ

문화현장

광주청년들의 비빌 언덕, 광주청년센터 <the 숲>

서일권_광주청년센터 the 숲 대표, 숲지기 센터장



21세기에는 청년을 가진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이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고, 203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지금의 청년들에게 미래를 의탁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미 20년 먼저 인구절벽을 맞이한 일본의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여 2040년이면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1970년대 국민소득 3천불이 채 안되었을 때부터 청년지원 정책을 펼친 독일과 달리 청년문제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이탈리아는 현재 약 70%가 부모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켄거루족이자 한해에만 4만여명의 청년들이 조국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투자이다. 많은 청년지원 정책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청년공간'이었다. 청년들이 참새 방앗간처럼 언제든지 들려서 고민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청년들에게 작은 인생학교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다. 그동안 지역에 여러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각각의 장소에서 자기영역을 구축하고 활동해 오고 있었지만, 활동 영역과 지역이 다른 청년들을 엮는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할 공간이 요구되어졌는데 광주청년센터가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

'광주청년센터 the 숲'은 지난 6월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지하상가 (구현철의 집) 자리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아 문을 열게 되었다. 청년허브, 무중력시대 등 3개의 청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운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하는 거점공간이자 새로운 혁신활동의 플랫폼을 지향한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들이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우리지역이 가진 강점과 가능성을 자원으로 해서 '지역적 가치'를 중시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며, 공동체성에 기인하여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다른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영하는 서울시 이후로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조직이 만들어진 건 광주가 처음이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간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가 상당한 고민이었는데 여러 후보공간이 있었지만 접근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 공사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지하상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심재생 차원에서 금남로 지하상가가 광주청년센터의 입지로 선택되었다.



광주청년센터 <the 숲>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하는 거점공간이자 새로운 혁신활동의 플랫폼을 지향한다.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과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도전사업', 청년이 원하는 강의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안심맞춤 프로그램', 강연회와 오픈테이블 방식의 '상(相)상(想)미팅 프로그램', 아시아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아시아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또한 매월 월례 회의를 대신해 페이스북을 활용한 스마트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금남로 청년성회'를 통해 센터운영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들이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우리지역이 가진 강점과 가능성을 자원으로 해서 '지역적 가치'를 중시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콜링 펠로우(Calling Fellow,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과 성과를 갖춘 선배그룹들을 지칭) 들을 선정해 청년들과 연결시켜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청년들이 연봉 금액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먹고 살기만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에 기인하여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다른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센터를 통해 모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제 광주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도 다져 나가고자 하는데,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청년센터는 편안한 공유공간인 'the 숲 홀', 창안공간 '나래', 아시안 유학생들과의 소통·교류 공간 '아시아', 편안한 이야기방 '토닥', 도전사업팀들의 공유사무실인 '이름, 세움', 'the 숲 사무실' 등 7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공휴일과 월요일은 휴관하고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미래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바로 청년이다. 광주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광주공동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자긍심을 기본으로, 혁신과 협동의 정신을 '청년성'으로 갖는 청년들 그 자체이다. ♪

문화현장

‘대학을 넘어 대학으로’ 시민자유대학

— ‘지식=대학’에서 ‘지식=자유’의 패러다임으로



장복동_전남대 교수, 시민자유대학 학장

며칠 전이다.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의 모 일간지 문화부 기자였다. 그/그녀는 최근 인문생태계의 흐름을 ‘인문학 열풍’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물어왔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문학의 위기가 대학의 몰락, 학문의 종말, 정신문화 쇠락의 뚜렷한 징후인 양 유난스레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언제 위기였냐는 듯, ‘인문학 열풍’은 인문학자들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일상의 풍경이 되었다. 기자의 물음은 이러한 흐름이 옳은 방향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을 대변한 것이었다.

우리는 ‘인문학적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삶의 생태를 오롯이 담은 인문학은 삶의 주변으로 추방되고 대중매체를 통해 붓물처럼 쏟아지는 일회성 인문학, 진지한 사유나 성찰은 삭제된 채 웃음과 유희만을 소비하는 ‘유사(類似)인문학’·‘사이비(似而非)인문학’이 인문학의 본질인 양 위장하여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삶과 분절된 삶은 청초한 생명력을 상실한 죽음을 예기한 삶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은 끊임없이 변전(變轉)하는 삶으로부터 이반된 ‘죽음의 인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도 이미 물신자본(物神資本)의 식민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제 대학은 권력과 지식의 고리를 견고하게 담금질하는 통치와 경쟁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논리와 기능에 따라 시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선별체계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은 더 이상 대학 교



시민자유대학 창립총회



시민자유대학 워크숍

시민 자유대학은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 가능한 학문’, ‘상호주체가 될 수 있는 학문’에의 소망과 호출에 대한 새로운 삶과 시대를 위한 응답이다. 시민자유대학은 ‘지식=자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민 스스로 주체·주인이 되어 사회·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며 자율과 자치의 교차점에서 공적 담론의 지형을 바꾸어 가는 새로운 자율·자치 대학의 모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육의 주체가 아니라 타율적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자유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적 모색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학을 넘어 대학으로’를 지향한다. 시민자유대학은 시대의 부조리, 자본의 식민영토로 전락한 대학, 학문간 경계가 구획되어 학문 간, 학제 간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둘러싸인 대학, 자본에 철저하게 굴종하는 인문학의 수상쩍은 변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민자유대학은 시대와 대학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미 만들어진 대학이 아닌 시민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대안대학을 꿈꾸는 대학 안의 학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설립했다. 시민자유대학은 공공성(公共性)·상호주체성(相互主體性)·지역성(地域性)·자생성(自生性)·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을 핵심원칙으로 철학·문학·미술·건축 등 예술과 학문을 매개로 다차원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민자유대학은 학벌과 학력의 우열로 계층을 가르고 차별화하는 학문 권력을 절대 배제하며, 무엇보다 참여자 모두를 동등한 주체로 존중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자유대학은 자본의 학문 식민영토화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자생적인 대학으로 거듭 날 것을 천명한다. 따라서 시민자유대학은 개방과 공개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협의·합의 기획하고 구성해 나갈 것이다.

시민자유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는 얹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경구(警句)는 계몽주의 교육의 전거로 ‘지식=권력’, ‘학력 또는 학벌=권력’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중심근거가 되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시민자유대학은 ‘지식=권력’, ‘학벌=권력’의 낡은 프레임에 맞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은 자유’를 선언하고자 한다. 시민자유대학은 ‘지식=자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민 스스로 주체·주인이 되어 사회·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시민자유대학은 자율과 자치의 교차점에서 공적 담론의 지형을 바꾸어 가는 새로운 자율·자치 대학의 모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삶의 맥박을 함께 하는 학문을 갈망한다. 시민 자유대학은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 가능한 학문’, ‘상호주체가 될 수 있는 학문’에의 소망과 호출에 대한 새로운 삶과 시대를 위한 응답이다. 이제 시민자유대학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며 동서 고전을 함께 읽고 깊이 사유하며 제대로 말하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횡단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삶의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 해결능력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 날 것이다. 시민자유대학을 통해 광주가 삶터·유희터·일터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단순히 ‘잘 사는 도시’가 아닌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문도시’,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자유대학이 시민 개개인이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데 삶의 건강한 토양을 형성하는 터전으로 자리 잡아, 광주가 그야말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부하는 ‘시민자유대학’의 숲이 되기를 소망한다. ♪

문화현장

지역학으로서 ‘광주학’ 정초(定礎)를 위한 콜로키움

김지원_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재단 운영위원



광주학 콜로키움

지역마다 문화적·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연구가 축적되는 1990년대에 이르러 ‘지역학’이라는 학문영역이 확산되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후 지역학은 민간이나 대학 내 연구소에서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역학’ 전담시설의 설립의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역학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형성해나가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지역학의 공통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도시의 쇠퇴기에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목적으로 도시정체

성에 대한 연구로, 일본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정주공간에 이해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지역학이 활성화 될 경우 긍정적인 성과는 지역공동체가 강화되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근거와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정주 공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지식이 확장되어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이름난 곳들은 지리적 특징이나 문화자원의 특수성을 연구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의례나 스토리를 끊임없이 개발굴, 재창조함으로써 장소 명소화 및 경제적 부유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2012년 박선흥, 김정호 선생님의 지적재산권 기증을 계기로 광주학 총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광주 1백년(1권, 2권)』과 『무등산』, 『광주산책(상)』을 출판하였고 올해는 『광주 1백년(3권)』, 『광주산책(하)』 출간을 예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출판위원회를 구성해 연차별로 본격적인 광주학 총서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학에 대한 총서 발간사업이 출판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학, 나아가 광주학 연구의 밑거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시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붙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도시정신에 부합성 여부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공공성의 영역에서는 규제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광주정신’이 발원하고 발 딛고 있는 토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정신에 대한 외연의 확장과 의미의 타자성도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타 지역처럼 지역학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이 도시의 ‘광주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부재함으로 인한 결과이다.

‘5월 정신’에서 ‘광주정신’으로의 전이는 시대나 계층을 넘어 광주공동체의 보편이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더구나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5·18정신을 매개로 한 광주정신은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의 차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광주정신’이 발원하고 발 딛고 있는 토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정신에 대한 외연의 확장과 의미의 타자성도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타 지역처럼 지역학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이 도시의 ‘광주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부재함으로 인한 결과이다.

지난 6월부터 광주문화재단에서는 ‘광주학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 8월까지 3차례의 전문가 집담회인 콜로키움을 진행하여 광주학 연구에 대한 방향과 목적, 분야 및 사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10월 8일(목) 오후 3시(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는 ‘광주학의 가능성과 전망’, ‘타 지역 지역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광주학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후에는 내년까지 월례 콜로키움을 통해 지속적인 광주학 담론장을 마련하여 ‘광주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의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역학 연구기관 현황〉					
NO	지역	기관명	설립년도	주요연구	예산 등
1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3	연구총서, 교양총서, 사료총서, 번역총서 발간 정례발표회, 심포지엄, 비정기학술행사 등	대학자체예산 1억원 한국연구재단중점연구소로 지정
2	경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1999	유학연구, 근대화콘텐츠 개발·활용, 문화자원 조사,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정보존과학	재단 자체예산, 경기도 위탁사업외부용역
3	인천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인천학연구, 연구총서, 연구보고서 등 발간 인천학 동아시(지역학, 한국지역학 세미나 등	시지원 특별회계 3억원 대학자체 기성회계 1억
4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	2004	대구경북연구, 2세기 청소년 롤 모델 〈은고지신 100선 프로젝트〉총 3권 저술	연구원 예산 사업별 예산 지원
5	경북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0	학술대회, 콜로키움, 워크숍 시민강좌 영남학 저서, 역사(현, 중기연구), 고전번역서	경북대 지자체사업 비용지원 사업비 연 3~4억
6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006	연구논총, 기획연구, 교양서 발간 학술행사, 연구문헌 목록집 구성 등 교육사업	시 지원 1억원
7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부산학 연구논총, 부산학 교양총서, 시민강좌 대학에 부산학 교과목 개설 지원 및, 교재 발간	연구원 예산 및 사업별 예산지원 (1억 2천)
8	대전	대전학연구회	2004	대전학 입문, 대전의 연구 등 저술사업 세미나: 대전학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연구원 예산 사업별 예산 지원
9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1	제주학 관련 민간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제주어 보존사업	연구원 예산 사업별 예산 지원

문화현장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晨明)

-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윤은희_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교육담당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2005년 창설했다.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2013년까지 총 5회의 전시를 개최해왔는데 총괄 기획자인 총감독이 설정한 주제와 기획 의도에 따라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디자인 마당을 펼치는 한편, 디자이너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디자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대중성을 담보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운영해왔다.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20년 동안 쌓아온 전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디자인분야 국제 전시회로 단숨에 자리매김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했지만, 국비 20여억원, 시비 20여억원 이외에 재단이 10여억원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하는 부담을 떠 안아 왔다. 또한 아트비엔날레와 상업적 성격을 띤 디자인비엔날레를 번갈아 개최함에 따라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점이 상존해온 데다, 두 행사의 특성이 희석되면서 차별성이 모호하게 되었다. 디자인비엔날레의 경우 산업과 예술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외연이 확장된 측면이 없진 않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예술성에 무게를 두는 작품들이 늘어가면서 디자인비엔날레 본연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위해 발족한 혁신위원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분리를 결정하게 되었고, 광주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재)광주디자인센터에 위탁 운영하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은 이러한 한국인의 신바람에 방점을 두어 지역산업과 해외디자인산업이 협력하고, 한중일 동아시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신명을 제안하고 있다. '대중에게 쉽게' 읽히는, '경쟁력'은 디자인 제품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기저에 두고, 광주지역의 중소기업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우수디자인제품을 양산하거나,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해 전시관을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디자인산업과 연계하는 동시에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특화된 전략으로 디자인비엔날레만의 정체성을 확보해 갈 계획이다.

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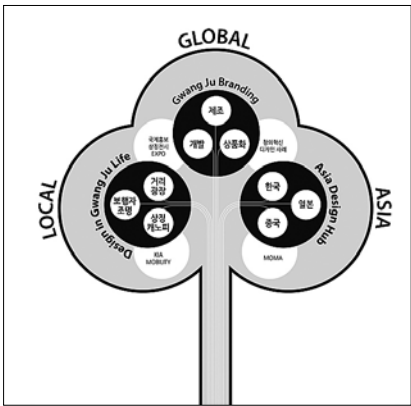
저간의 사정에 따라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준비기간이 짧아졌다. 지난 2013년 50억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올해 23억 원으로 줄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당연히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또한 행사 기간도 30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행사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상황이 열악해졌지만, 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화두로 최경란(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총감독 체제하에 올해 여섯 번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흔히 신바람으로 대변되는 신명은 어떠한 일을 함께 있어 매우 즐겁게 빠져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

하여 일을 했을 때, 즉 신명나게 했을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주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신명의 정서는 집단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전이되는 특성을 갖는 매우 긍정적인 한국인만의 고유한 정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은 이러한 한국인의 신바람에 방점을 두어 지역산업과 해외디자인산업이 협력하고, 한중일 동아시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신명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주제 신명은 한자어로 새벽을 의미하는 신명(晨明)을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날의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의미하고 있다고 최경란 총감독은 밝히고 있다. 또한 '대중에게 쉽게' 읽히는, '경쟁력'은 디자인 제품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기저에 두고, 광주지역의 중소기업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우수디자인제품을 양산하거나,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해 전시관을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디자인사업과 연계하는 동시에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특화된 전략으로 디자인비엔날레만의 정체성을 확보해 갈 계획이다.

디자인이란 삶을 즐기는 행위다. 유쾌한 디자인이야말로 기업에게는 강화된 경쟁력을, 대중에게는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2015년, 디자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시작을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맞게 되길 바란다.



디자인비엔날레 트리

문화현장

용아 생가에서 용아 무덤까지

— 광주문화로드 4번길

김을현_시인 포토페이지

70~80년대를 순수의 시대라고 한다. 80년대 후반부터 격변하기 시작한 아파르트문명은 물질만능의 21세기를 낳았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순수에서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작은 거인으로 통하던 김수철이 “나두야간다”를 외치던 때가 있었다. 바로 그 노랫말이 용아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용아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다.

1904년, 광산구 소촌동에서 태어난 용아 박용철. 물찬제비처럼 말끔한 용모였지만 천성적으로 몸이 허약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내외적으로 흥흥했던 시대였다. 천성이 시인으로 태어난 용아는 짧은 생애(35세)를 통하여 정착보다는 자유롭길, 희망보다는 허무를 노래한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광산구는 송호영당이 있는 유서 깊은 반촌이다. 놀재 박상, 사암 박순, 고봉 기대승 등 문사의 고향이다. 극락강이 내려다보이는 풍영정, 노평산 기슭의 호가정, 병월당의 물안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러한 역사가 흘러내려 1930년 시문학파를 태동시킨 순수시의 고향이 됐다. 박용철은 시문학 외에도 『문예월간』, 『문학』, 『극예술』 등 총 4종, 14권의 문예지를 만들었다. 자신의 시집보다 지용시집, 영랑시집을 먼저 발간한 일화도 유명하다. 이산의 아픔과 남겨진 자의 절망을 노래한 「떠나가는 배」, 박용철 시인의 유고집에 실린 총 74편의 시는 근대문학의 유산이다.



용아생가 안채



송원공원 용아 박용철시비 「떠나가는 배」

용아 박용철은 정착보다는 자유롭길, 희망보다는 허무를 노래한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태어나고 자란 광산구는 1930년대 시문학파를 태동시킨 순수시의 고향이 되었다. 현재 이산의 아픔과 남겨진자의 절망을 노래한 「떠나가는 배」, 박용철 시인의 유고집에 실린 총 74편시는 근대문학의 유산이다.

용아 탄생 111년이 지난 그의 프락에 「떠나가는 배」 시비가 있다. 하염없는 그리움에 젖어 뿔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용아도 저 하늘을 보았겠지. 남쪽하늘 용아의 절대우정, 영랑생가가 떠오른다. 그 먼 길을 멀다않고 찾아오고 찾아갔다니 두 사람의 우정이 새삼 고맙다.(이 둘의 우정은 광주공원에 용아-영랑 쌍시비로 세워져 있다) 만날 운명이라면 꼭 만나게 된다고 했던가. 용아와 영랑의 만남, 용아와 지용의 만남은 현대시의 혁혁한 공로가 됐다. 총칼을 들고 만주를 해매며 독립운동을 주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글을 지키며 빛낸 사람으로 ‘시문학파’를 내세우기에 주저함이 없다. ‘북소월 남영랑’이라고 영랑의 아름다운 시도 용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용아와 영랑의 우정은 「너의 그림자」 그리고 「고향」 등에 표현되고 있다. 또한 여동생의 친구를 사랑하며 「밤 열차에 그대를 보내고」를 쓰며 얼마나 아파했는가. 이별의 슬픔에 빠져 있던 용아는 영랑과 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며 영적 동지로서 희열을 느낀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자신에게 가해진 족쇄를 풀어버리려고 고향을 떠난다. 그리고 「해후」, 「안가는 시계」, 「고운 날개」를 쓰며 임정희와 재회를 한다. 비록 짧았지만 다시 찾은 행복의 단꿈이었다.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가 아는 법일까. 용아는 사재를 털어서 지용과 함께 『시문학』 1권, 2권, 3권을 만든다. 아내 임정희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한 모습이 보인다. 시와 사랑, 우정 속에서 살던 용아는 아내 임정희와 영랑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다. 말년에 쓴 「단상1」, 「단상2」, 그리고 「소악마」는 병이 악화되어 죽음을 직면한 자신의 모습이다. 최후의 시 「절망에서」, 그리고 「만폭동」을 남기고 시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대표작 「떠나가는 배」는 지금도 송정공원에 정박해 있다.

용아 생가에서 10여분이면 송정공원에 닿는다. 솔머리에 부는 바람을 맞으며, 눈길 닿는 곳마다 용아와 마주쳤을 그리움을 만난다. 허공에 손을 들어 바람결을 만지며 ‘안녕’ 하고 속삭여 본다. 송정공원의 시비, ‘나두야 가련다’는 속없는 외침이었을 뿐인가. 벚꽃 피었다 진자리 단풍이 피고 있다. 마주보고 선 국창 임방울 노래비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달 밝은 밤이면 한쪽에서는 시를 읊고 건너편에서는 ‘쑥대머리’라고 부르는지, 가을바람이 생각을 흔들고 간다. 송정공원 일대는 오래된 거리로 집도 대문도, 그곳에 핀 화분도 색이 바랬다. 오히려 그런 풍경이 정겨운 것은 추억 속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용아에 흠뻑 젖어 용아와 함께 걸었다.

송정공원과 지척거리에 광주도시 지하철 송정공원역은 일찌기 ‘지하철문학관’을 열었다. 문화철을 표방하는 광주지하철의 배려다. 오가는 사람들은 용아와 다형, 영랑을 비롯하여 봄비의 시인 이수복 등 광주·전남권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기에 좋다. 문학의 DNA가 끝없이 이어지고 답습된다. 불행까지도 행복한 사람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용아 무덤이다.

광산구 말미산, 해발 120m의 나지막한 산이다. 그곳에 용아와 정희의 쌍무덤이 있다. 도심이라고는 하지만 한적한 곳, 봉분이 향한 곳은 서울인 듯,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 용아무덤을 기웃거리고 서성거린다. 그리움의 끝에 닿았지만 눈물 한 자락 올라오지 않는 까닭은 왜 일까. 그림자기 보다 허무, 앞대일 언덕조차 없는 허망함을 느낀다. 희망만이 시가 아닌, 절망 속에서 튀어 오르는 생의 의지 같은.

용아무덤을 뒤로한 채 되돌아오는 길, 어두운 시대의 가난한 플랫폼과 느릿하게 차창을 스쳐가는 풍경이 눈에 잡힐 듯 그려진다. 짧은 행복 긴 불행, 용아는 한 치도 알지 못하는 안개 속을 살다 갔다. 그가 걸어 다닌 길들이 ‘卜’자로 그려진다. 용아를 ‘영아’하고 불러본다. ♪

문화포커스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서 꿈을 펼칩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4일부터 프로그램 단계적 공개

편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이하 전당)이 9월 4일(금)부터 시민들에게 전당 내·외부 공간을 개방하고, 예술극장 등 각 원의 프로그램을 일부 공개하였다. 9월 3일(목) 저녁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 축제도 열었으며 9월 4일부터는 전당을 둘러싼 울타리를 제거하고, 보수(리모델링) 중인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전당의 내·외부 공간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전당 내부에서는 원별 프로그램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개하며, 전당

내 야외 광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또한 1일 3회(13시, 14시 30분, 16시)의 전당 투어프로그램을 통해, 전당의 내·외부 공간과 시설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초청 투어도 진행된다.

전당 내·외부 공간 개방, 전당 투어프로그램 제공, 9월 3일 시민참여축제

3일 저녁에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등을 초대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방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축하 공연과 참여형 댄스 공연인 '집단 무도회'를 비롯한한 레이저쇼, 아시아 차 문화 교류전, 아카펠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전당 야외 하늘광장에서는 어린이문화원이 준비한 '반딧불이의 기억'과 '몽키즈'가 공연이 됐다.

전당 내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그리고 어린이문화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문화정보원에서는 아시아의 디자인, 근현대 건축, 사진 등 14개의 주제별로 '아시아문화예술 전문 아카이브', 한국 싱가포르 수교 40주년 기념전인 '싱가포르 아트 아카이브 프로젝트(SAAP)'를 선보인다. 또한, 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씨의 설계 당선작인

〈빛의 숲〉모형 전시 등 '전당아카이브전'을 통해 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보인다.

문화창조원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 전시를 복합 4관에 서 연다.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안젤름 프랑케(Anselm Franke)가 총괄 기획한 이 전시에는 아시아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했다.

예술극장에서는 29명의 아시아 작가들이 제작한 총 33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 중 12편의 작품들은 예술극장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법사를 모티브로 하여 수행의 과정을 표현한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의 '당나라 승려', 2010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태국의 아피차퐁 감독의 '찬란함의 무덤' 등 수준 높은 아시아 동시대 공연 예술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11개국 41개 작품, 206회의 공연 페리이드로 구성된 '2015 어린이공 연문화축제'가 전당과 광주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소리동화인 '부케티노'를 포함해, 다양한 공연과 거리예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9월 부분 개방은 전당 시설과 지금까지의 전당 개관 준비과정을 공개하는 자리이며, 전당을 공식적으로 개관하는 11월(또는 12월 초)까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주 요 프 로 그 램	비 고
전당 공통 프로그램	• 제6회 ACC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8. 29~30, 민주광장) — 참가작: 전세계 11개국 12개 공연단(말리, 쿠바, 레바논 등) — 예술감독: 인제진 감독(지라섬 재즈페스티벌 총감독) • 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개방 축제(9. 3) — 시민과 함께 하는 무도회(Bal Moderne) — 아시아문화교류전, 레이저쇼, 아카펠라 공연 등 • KBS 〈더콘서트〉촬영(9. 24)	
문화 정보원	• 문화정보원 개소(9. 4~) • 9월 부분개방 기념 인문학 강의(9. 4~ 연중 주 1회) — 국내·외 문화예술계 주요인사 초청 전당 아시아문화 관련 정기 강연 — [9. 4.] Anselm Franke(복합4관 큐레이터), [9. 16.] 송효성(건축가) 등	
문화 창조원	• 복합 4관 :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 展 개소(9. 4~) —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 경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대한 강(江)을 통해 '경계와 구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 큐레이터 : Anselm Franke(베를린 세계문화의집 수석 큐레이터)	복합 1, 2, 3관 11월말 개소 예정
예술극장	• 예술극장 개관페스티벌(9. 4~21, 전당 광주내 문화예술시설) — 참가작: 차이밍량(臺) '당나라 승려' 등 국내외 총 33작품 — 기타 유럽페스티벌연합(EFA) 주관 행사 등 부대행사 연계 • 페스티벌 센터 운영(8. 30. ~9. 20, 전당)	
어린이 문화원	• 어린이공연문화축제(9. 3~12, 전당 광주내 문화예술시설) — 참가작: 소치에타스 리파엘로 산치오(伊) 〈부케티노〉 등 국내·외 총 45작품 — 기타 어린이공연포럼 관계자 네트워크 미팅 등 부대행사 연계 • 어린이·가족 대상 참여형 이벤트 프로그램	
민주평화 교류원	※ 리모델링 공사 진행중 ('15. 11월 중순 외장공사 완료, '16년 초 전시콘텐츠 준비 완료 예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문화청년그룹

섬을 걷자! 섬에서 배우자! 섬에서 나누자!

— 섬여행학교

강동준_섬여행학교 대표

왜 섬 여행인가?

전라남도는 드넓다. 6,400km에 달하는 드넓은 해안선과 우리나라의 약 42%를 차지하는 갯벌(1,036㎢ 면적) 그리고 2,21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져 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갯벌과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바다와 각양각색의 섬들은 전라남도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내주는 보물들이다. 섬은 언제부턴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마치 어느 날 홀연히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멀리 있는 듯 아련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섬은 늘 거기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염없이 오랜 세월동안 푸른 파도와 붉은 노을, 하얀 해무사이로 거칠고도 고요하게 육지에서 출발하는 검은 연기를 내뿜은 철부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과 한가롭고 여유로운 섬마을 생활문화, 그리고 풍성한 인심으로 반겨주는 섬사람들은 지친 도시민들에서 휴식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유유자적 여행을 꿈꿀 수 있다.

섬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섬여행학교가 시작합니다.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아름다운 우리 남도의 섬. 그러나 너무 멀어서, 잘 몰라서 쉽게 다가가 수 없었던 섬.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목하지 못했던 우리의 보물, 남도의 섬을 재발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행의 감동과 섬을 찾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0년 섬여행학교가 야심차게 첫 문을 열었다. 섬여행학교는 ‘섬을 걷자! 섬에서 배우자! 섬에서 나누자!’ 라는 3가지 핵심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생태관광,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을 위해 섬의 길과 마을, 자연을 걷고, 주민과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주민과 여행객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여행을 지향한다.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섬과 그 섬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을 제대로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섬을 찾도록 만들고, 나아가 섬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섬의 자연과 생태,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섬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섬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다채롭고 풍성한 섬여행 콘텐츠를 여행상품으로 기획해서 섬여행을 떠나고 있다. 단순히 섬을 찍고 도는



관광이 아닌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섬 생태자원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섬마을의 문화, 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해보고, 섬 주민으로부터 배우고 여행객들과 함께 나누는 여행프로그램으로 섬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 홍보 마케팅을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섬여행학교의 주요 섬여행상품은 섬의 구석구석을 걸어보며 섬의 참맛을 알아가는 ‘섬 에코투어’, 섬에서 원시생태가 잘 보존된 숲을 걷는 ‘섬 숲 생태트레킹투어’, 숲에서 즐기는 생태예술체험, 마을과 주민들과 직접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를 접목한 ‘섬 볼런투어’, 밤바다를 무대삼아 즐기는 ‘섬 SING FESTIVAL’,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과 교육을 통해 섬 생활문화를 배우는 ‘섬스쿨링투어’ 등 주민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고 기획구성되어 있다.

섬 지역 주민들과 여행객간의 공감과 소통,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섬여행학교의 목표지점으로 실질적인 섬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여행객들과 같이 모색하여, 섬여행상품 개발과 섬여행정보 사이트 구축, 주민참여형 섬마을가꾸기, 섬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 녹여내면서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여할 것이다.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섬 관광 주요사례를 보면 여수 금오도의 해안절벽을 걷는 비렁길, 완도 청산도의 슬로길, 신안 중도 슬로시티, 진도 관매도, 고흥 소록도와 거금대교, 여수 사도와 하화도 등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섬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동안 현대사회의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는 도시민들에게 섬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섬의 생태, 자연환경, 문화는 어딘가 불편하고 매력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언제부턴가 생태, 웰빙, 힐링, 친환경, 저탄소 등의 키워드가 자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서 걷기열풍, 도보여행, 생태체험, 공정여행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제주 올레길의 폭발적인 흥행으로 사람들은 조금씩 섬여행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통통배를 타고 몇 시간씩 걸리는 머나먼 뱃길 따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팽이 갈매기떼의 날개 짓, 모진 해풍과 파



1 외달도 사랑의 섬 여행II 기념사진
2 섬여행 갯벌체험

도로 거칠게 깔여 진 기암괴석과 잘 빗어진 몽돌의 파도소리, 갯바위에 웅기종기 모여 사는 거북손과 배말, 웅장하게 펼쳐진 찰진 갯벌 속 빨 나지와 철게. 그리고 바다를 벗 삼아, 자연과 부대끼며 생활터전으로 살고 있는 섬사람들 이야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력과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속도와 경쟁에 찌든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것은 망망대해 바다도 아니요, 화려한 자연풍과, 거대한 문화유산도 아닌 섬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는 섬마을주민들이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내안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망망대해로 갈매기를 벗 삼아 떠나보자. 육지는 자꾸 멀어져간다.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점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다시금 점이 탄생하고, 점차 선으로 면으로 다가온다. 섬에서 우리는 잃었던 또 다른 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유유자적 섬 길을 걸으며, 섬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슬며시 들여다보면 거친 바다에 기대어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육지로 돌아오는 배안에서는 어느새 처음 겪어보는 큰 울림으로 내안을 푹팍 채우고 다시금 나의 세상으로 돌아갈 생기와 활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섬으로 간다.

〈섬여행학교_www.facebook.com/ecostep2010cafe.naver.com/ecostep〉

문화특독

메가이벤트의 허와 실

안태기_광주대 교수, 재단 운영위원



오늘날 이벤트는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대중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총체적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이벤트의 시대’라 불릴 만큼 다양한 이벤트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책 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을 홍보 및 발전시키고, 지역의 내·외적 환경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의 특징은 다수가 참여하면서도 참여 비용이 적어 다른 수단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 요소가 강하여 인간의 유희적인 요소에 적합하며, 지역 활성화를 통해 특정 지역의 어떤 부분을 특성화시켜 질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벤트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독특한 지역 이미지를 발굴·창조하는 미래기술 문화 지향 산업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 사업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운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한 대형 이벤트가 그 지역을 홍보하고, 도로, 환경 개선 등 SOC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하므로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예산과 시간, 인력 등을 투입하여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고 일회적이거나 낭비적이며, 지역의 결집된 에너지로 통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광주에서 열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또한 스페셜 이벤트라고도하고 메가 이벤트라고도 한다. 오늘날 성공적인 메가 이벤트라 함은 지역의 고유성(CI·community identity)에다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을 안고 있어야 하며, 연속성과 생명력을 확보하여 맥을 이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성화 발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메가 이벤트가 지역의 마케팅전략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준 대회였다. 이벤트 사업이 지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발전, 지역사회의 연대와주민의 공동체의 의식(community Identity)을 함양하는 외에, 지역의 지명도를

광주의 성공적인 도시 마케팅을 위해서는 메가 이벤트가 끝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벤트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의 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허와 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제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제 광주는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이미지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다. 특히 광주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영역까지 광주를 아시아와 세계와 소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예술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려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조시켜 줌으로써 지역 주민의 귀속의식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참가를 촉진하고, 인권과 전통문화의 집산지인 광주를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메가 이벤트의 개최가 도시에 대한 인지적 총체인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구축된 도시 이미지는 도시의 각 요소에 대한 평가인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광주국제수영대회와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등도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해 도시를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가 이벤트가 성공 개최되었다고 해서 모든 개최지역이나 정부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부응하거나 사후 시설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탈바꿈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설치될 시설부문들의 장기적인 사용범위도 심도 있게 조사되어야 하고 활용가치도 정확하게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가 이벤트 내에 허와 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 하고 그에 전문가들의 조사와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공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진정성 있는 지원으로서의 투자 유치 전략과 실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도시마케팅은 메가 이벤트가 끝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까지도 메가 이벤트의 효과를 이끌어 가는 개최도시는 생각보다는 적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실패로 평가되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광주를 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생각 저생각

영문 월간지 광주뉴스, 지역의 역량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산

김태형_광주국제교류센터 대외협력팀장

얼마 전,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현재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에 광주뉴스를 발송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는 전화였다. 한참 전후사정을 설명해 주던 시청 직원은 광주뉴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뿌듯해져서 흥분 되었던 것 같라며 통화를 마쳤다.

올해 1월에 취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시장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장이 광주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다. 외부 손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광주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외출장 때도 항상 준비해간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었는데 사실이었나 보다. 그래서 윤장현 시장이 취임한 후 매달 50여권의 광주뉴스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부족해서 추가요청을 자주한다.

2001년 9월 8쪽 자리 흑백으로 제작되어 현재 60쪽의 컬러판으로 인쇄되는 광주뉴스는 한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최초의 영문 월간지이기도 하다. 처음 시작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꾸준히 한명 두 명씩 함께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지금의 광주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광주뉴스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조사, 기사작성, 감수, 사진촬영부터 온라인 사이트 게재까지 광주뉴스 제작과정의 대부분을 연간 100여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오롯이 우리의 힘만으로 말이다.



광주뉴스



지금 광주뉴스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조사, 기사작성, 감수, 사진촬영부터 온라인사이트 게재까지 광주뉴스 제작과정의 대부분을 연간 100여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오롯이 우리의 힘만으로 말이다.

우연한 계기에 광주뉴스를 알게 되어 센터로 연락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하나같이 광주뉴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광주라는 도시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들 얘기한다. 그제 뭐 얼마나 대단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마냥 립 서비스로만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반응은 놀랍기만 하다. 오히려 매달 50여페이지의 영문잡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하다. 한국의 어느 도시도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광주뉴스가 광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 영문월간지라는 사실 만으로도 대개 손사래 부터 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영어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광주뉴스를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전문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지역기반의 사업체나 문화예술, 관광 영역에서의 콘텐츠들이 광주뉴스에 게재되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가 외국인들에게 홍보되고 전달된다는 것은 광주가 가질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올해 열렸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부터 그 활용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이번 9월호에는 아시아예술극장과 관련한 기사가, 다음 10월호에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련 특집기사가 연속해서 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지역을 찾는 손님에게 극진한 대우는 좋은 음식이나 잠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외국인사의 인터뷰 기사나 특집 기사를 싣고, 그들의 모습을 표지사진에 게재하여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진심을 보여줌으로서 우리들도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 아마도 지역에서 국제교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다. 광주뉴스는 광주국제교류센터만의 것이 아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도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지역의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자산인 것이다. 지역의 많은 기관단체 활동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광주국제교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 스스로에게도 외부와의 다양한 협력은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뉴스 편집회의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2단계 3차년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 추진

- 세 번째 목록학총서 『호남누정 기초목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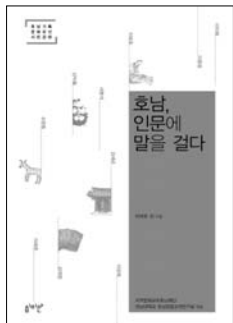
이번 총서는 호남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인 호남지역 누정 3천 742개소를 처음으로 정리한 책으로 호남지역에 현존하는 누정뿐만 아니라 현존하지 않는 누정까지 집약하고 있어 호남 누정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이 책은 누정 이름, 창건자, 창건 시기, 위치, 참고문헌 등 누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다. 검색의 편의상 지역과 관계없이 누정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 쉽게 누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마지막에 시·군별 누정 일람표를 붙여두어 지역별 누정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했다.

-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출간

이 책은 호남기록문화에서 인문의 원천을 찾기 위한 주제 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에서 발표된 강연을 엮은 것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열명이 먼 고대로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헌 그리고 철학의 지혜를 통한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마치 눈앞에서 강연을 들려주듯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 1차 자문회의 개최



지난 8월 25일(화) 오전 12시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에서 올해 1차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 각 부분별 내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5기 역사문화시민대학 성료



제5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지난 4월 30일 목요일부터 5월 28일 목요일까지 5주간 '역사와 문화로 읽는 사랑이야기'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가한 가운데 강좌와 문화탐방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다.

2011년부터 독특하고 깊이 있는 강좌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호평 받아온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올해에는 '사랑'을 주제로 문학, 호남인물, 서화, 역사에 새겨진 기쁨, 눈물, 운명, 욕망 등의 감성을 찾는 인문학여행을 통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사랑에 대하여 성찰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재단소식



강좌는 제 1강좌 4월 30일, 문학으로 읽는 사랑이야기(문병란 시인) 제 2강좌 5월 7일, 호남인물로 본 사랑이야기(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 제 3강좌 5월 14일, 역사 속 사랑이야기(이창준 전남대 교수) 제 4강좌 5월 21일, 서화로 본 사랑이야기(이선옥 전남대 교수) 등이 차례로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에서 진행되었고, 5월 28일 목요일에는 ‘매창과 동행하다’ 주제로 전북 부안 인문학여행도 병행하였다.

제4회 밋밋들 한마음 마을축제 개최



제4회 밋밋들 한마음 마을축제가 지난 5월 16일(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남구 콘방림길(방림초등학교 앞길)에서 약 1,00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축제는 밋밋들 가족이 참여하는 생활장터, 우리 엄마가 만든 먹거리장터, 다양한 체험활동과 방림동 사람들이 준비한 풍성한 문화공연, 밋밋들 노래자랑, 대동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올해는 특히 방림2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지역의 자생단체, 방림동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의 교육기관 및 단체, 인근 피아노, 음악, 태권도, 합기도 관련 교육학원, 우리재단 등 많은 사람들이 사업비 지원 없이 본 축제의 주체가 되어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행사비용을 실시일반 모두 모아 함께 이번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한편 2011년부터 작년까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공방방과 우리재단이 세대 간 어울림 문화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마을을 소재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전개하며 그 활동을 마을로 확장, 지역공동체에 속한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밋밋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으로 올해 주민이 자생적으로 만드는 마을축제의 첫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교사의 광주역사 연구’ 주제로 학술심포지엄 열려



우리재단이 광주교육대 역사문화교육연구소(소장 김덕진)와 공동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인 교사의 광주역사 연구’를 주제로 지난 9월 10일(목) 오후 3시 광주교육대 교육매체관 오펜실에서 제13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주제발표는 ‘하마모토 데스타로(山本哲太郎)의 『광주군사』 집필과 그 내용’(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 ‘광주심상소학교의 『광주향토독본』 발간과 그 내용’(류시현 광주교육대 교수) ‘아사다 야스노리(安田保剛)의 교육활동과 교육관’(한예원 조선대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한구무 광주대 교수, 김홍길 전남대 연구원과 인사차 광주교육대 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우리재단과 광주교육대 역사문화교육연구소는 광주 지난 2011년부터 호남학의 대중화와 연구성과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시민강좌와 학술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재단소식

• 연대활동 이모저모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참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접근권 대책위원회 활동
3차례 전당 편의시설 점검(5. 6.~5. 29.) 및 문화전당
편의시설 시정요구(현장점검 결과서 및 시정요구서 전달,
언론보도, 간담회 개최 등) 촉구활동(5. 6.~8. 4.)
- 2015민관합동워크숍 활동
문화예술관광분과 회의(7. 1. /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전문가워크숍(8. 18.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국제문화교류협의회 회원단체 참여

문화거버넌스 활성화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
(7. 23. /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바람직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을 위한 연대활동

- 전당 개관 100여일 앞둔
현 상황에 대한 5개 단체 성명서(5. 28.)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상 훼손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축소 반대 기자회견
공동개최(6. 25.)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6. 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7. 1. / 국회)
-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지역국회의원, 문재인 대표, 광주시민문화단체)
참여 및 공동기자회견 발표(7. 1.)
- 문화관광정책실 축소를 전제로 하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반대 성명
공동발표(7. 1.)
- 문화전당 직제(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규탄 논평 발표(7. 7.)
- 전당 조직 출범 및 아시아문화원 설립 준비에
즈음한 광주지역 시민문화예술단체 논평(7. 29.)

재단 창립 10주년 성황리에 열려



재단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15일(수) 오후 6시에 광주국
제교류센터 1층 강당에서, 내빈과 전현직 임원, 회원 등 8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재단의 설립
과 사업 전개 과정에 애쓰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지난 10년의

재단소식

성찰과 새로운 10년,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다짐하고자 개최한 행사이다.
백수인 이사장(조선대 교수)은 '그동안 시민들이 재단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재
단의 약속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참석
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재단 임원 워크숍

- 전통문화연구회 '얼쑤'에서 진행



재단 임원 워크숍이 지난 6월 20일(토) 20여 명의 임원이 참여
한 가운데 전통문화연구회 '얼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재단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공유, 전당 개관 이후 재단의
역할 모색, 재단 교류사업의 구상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
되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은 재단 정책위원회, 시민문
화교류위원회, 사무처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점심 식사 후에는 김성 진흥이사의 서울이야기, 김
양균 위원이 대표로 있는 '얼쑤'의 멋진 공연이 함께 해 워크숍
행사를 빛내주었다. 워크숍이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양균 위원, 간식을 제공해주신 박신영 위원을 포함, 참석
해주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린다.

• 조직

제41차 운영위원회 열려

정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화) 오후 6시30분에 재단사무
실에서 열렸다. 김정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각

위원회 부의 안건, 재단 임원워크숍 개최, '창' 편집위원회 구성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일부 사업의 수정과 보완을 전
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31차 지역문화진흥회 개최

- 재단 임원 워크숍 개최기로



지역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7일(수) 오후 6시30분에 재
단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재단 상반기 평가와 하반
기 전망 수립, 신규 임원 환영 및 임원 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6월
20일에 전체 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5차 임원회의와 제41차 운영위원회 의결을 수렴한
것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하반기 회원사업 추진
계획으로 격월로 진행되는 문화번개탕은 광주전남지역 일원에서
6월부터 추진키로 하였고, 회원 음악회 개최 및 프로그램 등은
회장단과 사무처에 위임하였다.

2015년 제8차 임원회의 열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임원회의가 지난 9월 7일(월) 오
후5시에 재단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하반기
사업일정 점검과 송년한마당 개최 검토 및 올해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조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원소식

[회원소식]

조영채 재단회원, <송재토목설계사무소> 개소하다.
조영채 회원은 올해 초 송재토목설계사무소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사무소(061-852-3786)는 전남 보성군 보성을 송재로 179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목설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간인가, 도로점용, 현황측량,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경옥 진흥이사, 조선대 『이집트 콥트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 받다.

김경옥 이사는 지난 2월 25일 조선대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조선대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 참가하여 동양지역문화 전공, 『이집트 콥트문화에 대한 연구 -콥트의 언어생활을 중심으로』 주제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경옥 이사는 광주시립제1병원 (옛 광주시립인광병원) 약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 진흥이사로 활동 중이다.

정순기 운영위원, 제1회 광주평화연극제 개최하다.

제11회 광주평화연극제가 5월 8일 개막했다.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 자부심 고취 및 문화수준 향상을 목표로 출발한 평화연극제는 매년 주제를 달리 해 평화를 노래해왔다. 올해는 '정의, 역사 속에서 찾다'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찾아가고, 예선문제로 한동안 사라졌던 평화연극상도 부활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에서는 극단 '청우'의 <내 이름은 강>, 일본 '쓰무마키 악단'의 <죽고 싶은 놈들>, 극단 '시민'의 <가슴을 가린 꽃> 등 모두 9편이 연극팬들을 만났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서울극단 '종이로 만든 배'의 <내 아이에게>가 2015 광주평화연극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해당작이 없었다.

- <광주일보> 발췌

남성숙 재단이사, 『호남! 어디가 아픈가요』 칼럼집 출간하다.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가 칼럼집 『호남! 어디가 아픈가요』(광주매스컴)를 출간했다. 『호남! 어디가 아픈가요』는 필자가 주필로 활동하면서 매주 써온 '남성숙 칼럼' 가운데 골곡진 시대적 아픔에도 아랑곳 않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호남인의 정신을 응축한 108편을 골라 엮은 것이다. 칼럼의 기저에는 긴 역사를 관통하며 대한민국의 혼을 일깨운 '호남사상'과 '광주정신'이 깔려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엄수경 재단회원, <오색 얼음 종이 사진전> 개최하다.

광주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진동아리 목요사진이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오색 얼음 종이'를 주제로 첫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동아리 목요사진은 사진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가을 결성한 단체로 그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각자가 찍은 사진을 서로 품평하고 인문한 책을 읽고 토론을 개최해 왔다. 이번 전시는 4년에 간에 걸친 작품 활동이 첫

회원소식

걸실을 맺는 소중한 자리다. 김형주, 엄수경, 오형석, 임성국, 장준식씨 등 5명의 목요사진전 회원이 참여했다.

- <남도일보> 발췌

주홍 운영위원, <고물자전거 원화전> 열다.



부부 아티스트 고근호·주홍씨가 다시 동화작가 문패를 내걸었다. 최근 세 번째 동화집 『고물자전거』를 펴냈다. 지난 2002년 동화집 『고물자전거』가 첫 선을 보인지 13년 만이다. 『아기 고양이 미로』에 이은 세 번째 동화집 『고물자전거』는 첫 판의 완성도를 더하고, 총 5권의 시리즈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예술가 부부 고근호·주홍 작가에게 동화책은 단순한 책 이상 의미를 지닌다. 큰 딸 정원이와의 삶에 대한 고민과 이들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꾼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그림책 원화전은 광주시 광산구 선운중에 있는 착한 예술 실천공간 '이공삼철'과 '꼬물'에서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렸다.

- <무등일보> 발췌

한희원 회원, 한희원 미술관 개관하다.

한희원미술관(관장 한희원)은 7월 2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희원미술관에서 '양림동'을 주제로 개관전을 열었다. 한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양림동을 회화로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였다. 전시작들은 1970년대 모습부터 최근



까지 양림동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한희원 화백이 사비를 들여 양림동 옛 가옥을 개조해 개관한 미술관의 첫 행사다. 광주 송정동 출신인 그는 10살 무렵 양림동으로 이사해 20년 동안 살았으며, 2003년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초대전이 양림동을 주제로 한 미술전으로 치러진 뒤, '굿모닝 양림' 축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림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왔다.

- <한겨레신문> 발췌

김대현 재단이사, 윤선도 문집 『고산유고』 완역 출간하다.

김대현 전남대 교수(국문과·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교수,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책임교수)가 고산(孤山) 윤선도의 문집 『고산유고』를 완역, 출간했다. 그 동안은 『고산유고』에 실린 시조, 한시 등 일부 작품만 번역 출판됐고, 완역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선도는 시조 『어부사시사』를 남긴 한국 시조 문학의 대가로 송강 정철과 함께 국문 시가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감수는 고산 연구 대가 박준규 교수(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 <광주일보> 발췌

정헌기 운영위원, <양림의 소리를 듣다-시즌 3> 개최하다.

지역대표 역사문화공간인 양림동이 문화로 물든다. 전문공연예술단체 '순수'는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 3 첫 무대로 무성영화 '카드' 상영과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 3는 '2015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건립 101주년을 맞은 오웬기념각에서의 무성영화 공연을 시작으로 양림동에서 5회의 주제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에서 벼룩시장과 거리공연이 어우러지는 정기 모꼬지를 진행한다.

- <광주드림> 발췌

회원소식

- **첫 번째 공연**
5월 가정의 달 기념공연
‘100년의 기억속으로’,
오웬기념각(5. 28.)
- **두 번째 공연**
‘빅밴드와 함께 하는
초여름밤의 재즈향연’,
우월순 선교사 사택(6. 13.)
- **세 번째 공연**
‘그림다 말을 할까하니 그리워,
이장우 가옥(8. 14.)
- **네 번째 공연**
국악과 재즈의 만남
‘가을아 오면 가지 말아라’,
오웬기념각(9. 12.)
- **100m 모꼬지(벼룩시장&거리공연)**
‘열정의 백미’,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길(7. 18.)

이이남 재단회원, '살아있는 명화 - 이이남 개인전' 개최하다.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개인전이 서울
동대문 롯데갤러리 청량리점에서 8
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렸다.
동서양의 명화를 현대적인 감성으
로 재해석한 작품은 <움직이는 그림
>으로 유명하다. 롯데갤러리 청량리
점 개관 5주년 기념으로 연 이번 전
시에는 영상 사진 등 30여 점을 선
보였다.

윤만식 이사, '전라도 사람들의 얼굴전' 특별전시 열다.

제1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행사 특별전으로 마련된 貞彬 윤만
식의 '전라도 사람들의 얼굴전'이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목포오거리 YMCA 앞 초현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라

도 사람들의 얼굴전'
은 40여년 간 문화예
술판 특히 마당판의
소재가 되었던 전라도
사람들의 얼굴을 창작
하여 제작한 창작(創
作)탈과 전통탈, 테라
코타 등을 한데모아
전시하였다.

김양근 운영위원, <2015 광주예술난장> 개최하다.



광주예술난장 곱판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태후)와 (사)전통문화연
구회 열우는 8월 28~30일 광주시 남구 포충로 빛고을공예창작
촌에 위치한 문화체험터 열우에서 '2015 광주예술난장'을 진행
하였다. 올해 7회째를 맞은 '광주예술난장'은 판소리, 산조, 시나
위, 남도민요, 살풀이 등 남도예술의 산파역할을 했던 '굿'과
'판'이라는 우리 전통 축제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남도를 대표
할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다.

- <광주일보> 발췌

이원형 진흥이사, 정년퇴임식 개최하다.

이원형 호남대 교수가 지난 8월 29일(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주신앙파크호텔 1층 연회장(에머랄드 홀)에서 정년퇴임식을 개
최하였다. 이날 모임은 이 교수가 방송국과 광고회사를 거쳐 대
학에서 20여년 강단을 섰던 65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인생의 2모작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약 100여분의 선
후배가 참여하여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한편 이원형 교수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일본 상지대 대학원
신문학과, 신문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 신문학과, 정치학 박사학
위를 받았다. 서울문화방송 프로듀서, 엘지애드 기획국장을 역
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재단에서는 창립 초
부터 재단 임원으로 참여하며 상임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재단
지역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시영 운영위원, 다원예술 '뉴폼' 선보이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과 안무가
조가영이 미디어 아트와 컨템포러리
발레를 비롯해 음악, 디자인, 인문학,
과학, 기술 간의 교류를 통해 이뤄진
미디어 아트와 발레를 접목한 다원
예술 '뉴폼'을 9월 17일 나주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1층 한빛홀
무대에 올렸다. '뉴폼'은 1시간 동안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조가영
의 발레와 국악의 조우를 보여준 '무늬' 작품이다. 무늬는 지난해
가을 광주에서 그린발레단이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 <무등일보> 발췌

재단가족의 마음을 담아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윤기 이사 빙모상
- 이경률 회원 모친상
- 임기주 회원 부친상
- 정순기 운영위원 부친상
- 조덕진 운영위원 모친상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백수인 이사장, 자녀(딸) 결혼
- 이연수 이사,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취임
- 조영임 회원,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취임
- 허성관 회원(전 이사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취임
- 홍경표 회원, 광주시의사회장 취임

회원소식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강동완(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기곤(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김동영
- 김문진(쌍용시멘트 광주전남지구 특약점 대표)
- 김미선(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연구원)
- 김상권(주/대광커뮤니케이션 대표)
- 김인태(광주리무진버스콜센터 대표)
- 김일웅(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 김현영(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연구원)
- 류영국(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 박미경(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 변길현(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 송진희(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유현섭(광주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 안선영(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장)
- 이경률(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 임승호(광주남구청 지역경제순환추진단 주임)
- 최주영(천정배 국회의원 비서관)
- 조병갑(밝은인쇄복사 사장)
- 조영임(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 조용준(광주도시공사 사장)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

〈부이사장〉
강동완 조선대 교수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사〉
김나복 변호사
김대현 전남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김병기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상임대표
김선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반운영본부 팀장
김영주 (사)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윤기 전 아트광주 사무국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양형렬 국제로타리 전 총재
양혜령 치과 의사
오건규 화가
윤만식 광주민예총 대표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연수 광주MBC 국장
이철우 전남대 교수
정현애 전 광주시의원 부의장
지형원 문화통 대표
차일현 세무사, 전 조선대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염낙귀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승권 조선대 교수
위 원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부로 사무처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항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한예원 조선대 교수

〈시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김도일 문화평론가
위 원 강혜경 전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안태기 광주대 교수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정순기 광주시연극협회 회장
 정현기 디자인 바우하우스 대표
 주 홍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함께하는 사람들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강동완 조선대 교수

〈부회장〉
오형근 의사
김경옥 약사

〈진흥이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 성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HOL 대표이사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사 사장
이원형 호남대 교수
정병수 남부대 교수
정선택 (주)대운광고 대표
정재원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강리정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



〈강좌 안내〉

2015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2’

- 일시 2015년 10월 6일(화) ~ 11월 24일(화) 저녁 7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 주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 사	주 제
제1강좌	10. 06. (화)	박석무_ 다산연구소 이사장	개혁가 다산의 기록의 힘
제2강좌	10. 13. (화)	천득연_ 전남대 교수	선비의 사유를 담은 호남의 건축
제3강좌	10. 20. (화)	허 균_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	옛 그림을 보는 법
제4강좌	10. 27. (화)	고영진_ 광주대 교수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제5강좌	11. 03. (화)	정창권_ 고려대 교수	조선의 부부에게 묻는 사랑법
제6강좌	11. 10. (화)	이덕일_ 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장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제7강좌	11. 17. (화)	강봉룡_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장	섬의 인문학
제8강좌	11. 24. (화)	오형녕_ 전주대 교수	역사 기록과 기억의 투쟁

※ 전남·북 서원·향교 순회강좌 개최(10월~11월 예정)

제9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광주정신, 문화와 인권으로 말 걸기’

- 일시 2015년 10월 8일(목) ~ 11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2층 강당
- 주최 광주광역시 북구청
- 주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 사	주 제
제1강좌	10. 08. (목)	나간채_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전라도, 아픈 자화상을 넘어서기
제2강좌	10. 15. (목)	서영진_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가 있는 삶 그리고 광주정신
제3강좌	10. 22. (목)	천득연_ 전남대 교수	건축에 스며든 선비정신
제4강좌	10. 29. (목)	주 흥_ 치유예술가	예술로 꽃피우는 광주정신
탐 방	11. 05. (목)	전북 군산 역사문화탐방_ 근대문화도시 군산으로의 시간여행	

※ 수강료 무료, 참가접수 문의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062-234-2727)

편 집 후 기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창』, ‘지역문화’를 화두로 길을 찾고 열면서 묵묵히 걸어온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앞으로의 10년은 문화담론지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습을 전복하는 신선함과 유쾌함이 묻어나면 좋겠다.

별을 / 쓰느라 / 머리가 / 세었소 (황순원 시, 『갈대』 전문)

갈대가 빗자루가 되어 가을 하늘 가득한 별들을 쓸어내느라 하얗게 되었다는 키 작은 사골 아이의 상상력이 보인다.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어른들의 눈과 다른 엉뚱함에서 전복의 쾌감이 있듯이 가끔은 『창』이 그런 역할을 통해 우리네 문화와 삶이 다채롭게 빛나도록 했으면 한다.

『창』을 풍성하게 해 준 필자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그 길에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